

식생활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

정 인 경*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이 일 하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 지 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박사과정)

아동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교사들은 아동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실태 및 교사들의 인식 등을 조사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경기지역 소재 11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로서 일반 사항, 식생활 교육 실시 실태, 식생활 교육의 인식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AS program을 통해 통계 분석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χ^2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은 가정과의 연계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며 초등학교 이전 시기부터 실시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과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은데 반해 교사의 식생활 및 영양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 및 수업 시간 수의 부족, 실험/실습 시설의 부족으로 식생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만 등의 식생활 관련 질병, 성장과 영양, 식생활 예절 등의 내용이 실과 교육 과정에 보충되어야 하며 가정 및 학교 급식과의 연계 지도 등을 통한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영양지식 및 올바른 정보 습득이 매우 필요하며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과정안 및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의 자료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등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서로 협력하여 식생활 지도 및 영양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